

# 「許生」의 엘리트(Elite) 의식과 그 성격

—구조분석에 의한 의미 고찰—

곽 정 식\*

## I. 머리말

「許生」 또는 許生傳<sup>1)</sup>을 비롯한 燕巖文學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이미 閔丙秀교수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과거 연암문학의 연구자들이 작품의 고유한 구조나 체제를 소홀히 다룬 반면에 思想性 등 외재적 요인에 집착한 나머지 작품의 본래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實學思想 연구의 資料史的 가치 수준으로 잘못 해석하고 평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sup>3)</sup> 이는 燕巖 자신이 밝힌 그의 文學觀<sup>4)</sup>에 비취볼 때도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비평적 안목이라 생각하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강사

- 1) 李家源 교수는 「許生傳」을 마치 고정된 현명인 뜻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이를 「許生」이라 해야 마땅하다 하였으나 (李家源 燕岩小說 研究, 乙酉文化社, 1965, pp. 591~595 참조) 일반적으로 人物과 作品을 구별하기 위해 작품을 「許生傳」으로 불용하고 있음.
- 2) 金一根, 燕巖小說의 近代의 性格(慶北大 論文集 第1輯, 1956). 金智勇, 實事求是 思想과 朴燕巖의 文學(濟州大 論文集 第三輯 1960), 杜錕球, 燕巖小說의 新研究, (語文論集 第三輯, 中央大, 1964). 李家源, 위의 책. 李在秀, 韓國小說研究(宣明文化社, 1966). 李源周, 燕巖小說考(語文學, 1966. 10), 「虎叱」의 諷刺對象(常山李在秀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2). 李廷卓, 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對象(安東教大 論文集 2, 1969). 閔丙秀, 韓國小說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7).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林煥澤, 漢文短篇形成過程에서의 講談師—許生故事와 尹映—(창작과 비평, 제13권, 제3호, 1978). 李石來, 〈許生傳〉研究 (李相澤外 編, 韓國古典小說 研究, 새문사, 1983) 등.
- 3) 閔丙秀, 朴趾源 文學의 研究史的 檢討(韓國學報, 第十三輯, 一志社, 1978, 겨울, pp. 169~182 참조), 李在統, 韓國文學의 解釋, 새문사, 1981, p. 7.
- 4) 「鷓鴣亦機引」, 燕巖集 1, 影印本(慶熙出版社, 1966), p. 25, 「善爲文者 其知兵乎 字警則士也 意警則將也 題目者敵國也 掌故者戰場城壘也 東字爲句, 圍句成章, 猶隊伍行陣也 韻以聲之 詞以耀之 猶金鼓旌旗也 照應者 烽火也 譬喻者 遊騎也 抑揚反復者 鏖戰鏖殺也 破題而結束者 先登而擒敵也 貴含蓄者 不禽二毛也 有餘音者 振旅而凱旋者」

본고는 무엇보다 작품의 내적 체계에 관심한 본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허생전」의 전체적 의미를 구조분석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시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암의 작품 중 가장 得意作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허생전」의 주제에 관한 논의에서 이른바 重商主義, 車舟論, 理想國 건설, 爲政者에 대한 비판, 北學論 尊明思想<sup>5)</sup> 등 천편일률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의 의미를 단순한 社會的 事實의 實錄의인 目錄化로 보아도 좋을 것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한 작품의 주제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얘기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고는 일차적으로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方法論的 未熟性을 지양하고 보다 合理的, 과학적인 방법론적 성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작품구조와 주제연구

자기목적적 이야기(discourse)로서의 문학작품은 무엇보다도 주제연구가 작품연구의 핵심적 영역이면서 작품연구를 마무리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고전소설 연구에서 주제의 탐색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 왔음은 주지된 사실인 바 이는 주제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진작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로써 얻어진 성과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방법론적 성찰이 너무도 부족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6)</sup> 이러한 사정은 특히 연암문학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 앞서 보인 바와 같은 素材의 事實의 目錄化 내지는 插話 수준

5) 李家源, 위의 책, pp. 585~734, 李在秀, 위의 책, pp. 332~352 참조.

6) 새로운 방법론적 모색을 거쳐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勞作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趙東一, 〈興夫傳〉의 兩面性, 啓明論叢 第五輯, 1969.

葛藤에서 본 春香傳의 主題, 啓明論叢 第六輯, 1970.

〈沈清傳〉에 나타난 悲壯과 滑稽, 韓國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3.

金一烈, 〈洪吉童傳〉의 不統一性和 統一性, 語文學 第二十七號, 韓國語文學會, 1972.

尹星根, 〈洪吉童의 신분 상승〉, 文脈 창간호,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1973.

의 의미로써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삽화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삽화가 나타내는 의미의 總和가 바로 작품 전체의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다양한 의미 가운데서 삽화의 어떤 의미가 작품의 전체 구조 형성에 유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참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삽화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여 이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진 체계를 이룰 때 비로소 주제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잡다한 題材 역시 작가의 일관된 시점에 따라 잘 정리될 때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제시한 예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 체계가 없으므로 주제의 차원에서 함께 다룰 수는 없다고 본다. 설령 문학이란 용어의 사용 범위가 매우 넓어 그 개념규정부터가 몹시 어려운 일이어서 문학작품의 주제 또한 개념적 多義性을 널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주제가 이야기가 나타내는 도덕이나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야기의 주제와 이야기의 소재를 同義語로 취급하거나 삽화적 의미를 전체적 의미로 해석하는 태도만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sup>7)</sup> 따라서 필자는 한 작품의 주제는 작품 속의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작품 속의 모든 부분이 이 주제의 형성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한 이야기가 가진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는 의미><sup>8)</sup>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작품에서의 주제는 일정한 이야기를 경과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주제는 모든 구성요소를 통해 암시되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일정한 주제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sup>9)</sup> 때문에 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성실한 독서를 필요로 한다. 일종의 지향적 창조(directed creation)라고 할 수 있는 독서에 의해서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 W. Kenney는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스토리 내의 부

7) William Kenney, 小説分析論 (嚴定玉역, 圓光大出版局, 1980), p. 108 참조.

8) Robert Stanton, "We can define themes as that meaning of a story which specifically accounts for the largest number of its elements in the simplest" (An introduction to fiction, p. 21).

9) 曹南鉉, 小説原論, 고려원, 1982, p. 172.

분들 사이의 관계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을 포함해서 스토리의 철저하고 성실한 독서에 의해서만 그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10)</sup>라고 하여 주제 연구를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한편 「許生傳」은 그 표제가 말하듯이 許生이란 人物의 전기형식을 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許生은 작중의 중심인물(main character)로서 작중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을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그 밖의 인물들은 부차적 인물로서 許生과의 상관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미를 갖는다. 결국 許生은 작중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한편,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수렴해 가는 第一次的 實體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許生傳」의 주제는 사건전개의 주제요 복합체라 할 러생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작품의 전체 구조를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주제를 객관적으로 귀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1)</sup>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심하여 얻어지는 전체적 의미야말로 진정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분이란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 등급의 단위를 말하는 데 부분은 다시 사건, 삽화, 단계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다.<sup>12)</sup> 이러한 구조분석에 의한 의미 고찰은 「스토리 내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 끊임없이 관심하면서 人物, plot, motivation, 배경, 시점 등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켜 작품의 구조적 심층을 탐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0) William, Kenney, 위의 책, p.116.

11)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이며 획일적인 방법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다. 주제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다의적 측면을 가지는데다 주제가 작품 속에 구현되는 방식도 작가와 작품에 따라 자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만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鄭夏英, 「沈滄傳」의 主題考,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pp. 457~458) 이에 몇 가지 예를 보이면, (가) 플롯, 액션을 통한 파악 (나) tone을 통한 파악, (다) 분위기를 통한 파악, (라) mood를 통한 파악 (이재선, 신동욱, 文學의 理論, 學文社, 1968, pp. 117~122). (가) 분석적 방법~작품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한 파악, 작중인물들 통한 파악, 작품의 갈등 구조를 통한 파악, (나) 총합적(주관적) 방법 (鄭夏英, 위의 책, pp. 457~461)

12) 尹星根, 위의 책, p. 23.

### Ⅲ. 구조분석의 실제

문학작품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을 구조<sup>13)</sup>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임을 우리는 앞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작품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귀납하여 작품을 하나의 統一體로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선입관도 배제할 수 있고 오직 작품의 현실문맥에 밀착하여 진지한 검토를 거쳐야만 되는 가장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許生傳」의 각 단계와 삽화와 사건을 차례로 분석하고, 이 같은 수준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형성하는 데 상호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만 사건은 지면 관계로 일일이 적는 것을 생략하고 해당하는 삽화에 속한 사건의 數만을 괄호 안에 적기로 한다.

#### 1. 제 1 단계(1 삽화)(3 사건)

1-a, (3) 主人公 許生 紹介

#### 2. 제 2 단계(8 삽화)(45 사건)

2-a, (5) 室人の 詰難

2-b, (6) 卜부자에게서 돈 萬金을 빌림

2-c, (5) 安城에서 商賈로 十萬金을 빌다.

2-d, (3) 제주도에 들어가 다시 巨富를 얻다.

2-e, (5) 無人空島에 들어감.

2-f, (12) 群盜를 救濟하다.

2-g, (5) 海外貿易을 통해 銀 百萬을 벌다.

2-h, (4) 銀 五十萬을 海中에 던지고 섬을 떠남

#### 3. 제 3 단계(4 삽화)(17 사건)

3-a, (6) 貧民救濟하고 남은 돈 十萬을 卜富者에게 줘다.

3-b, (4) 卜氏가 許生의 居處를 알게 됨.

13) 李佑成, 林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下), 一潮閣, 1978, p. 426.

3-c, (4) 이어 卞氏가 許生의 生計를 돕다.

3-d, (3) 卞氏가 許生의 탁월한 經綸을 알게 됨.

4. 제 4 단계(4 삽화)(16사건)

4-a, (5) 卞氏가 李滄에게 許生의 탁월한 經綸을 알려주다.

4-b, (3) 李滄이 許生을 찾아갔다가 모욕을 당하다.

4-c, (6) 許生이 李滄에게 이른바 時事三難을 말함.

4-d, (2) 許生이 크게 怒하자 李滄이 도망쳐 버림

5. 제 5 단계(1 삽화)(1 사건)

5-a, (1) 許生이 자취를 감추다.

#### IV. 단계별 검토

지금까지 앞에서 자세하게 분석,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개별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하자. 먼저 제 1 단계는 하나의 插話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세 개의 사건이 포함된다. 이 단계는 主人公 許生의 人物紹介가 중심이 되고 있어 작품 全篇에 걸쳐 작용하는 기본적 상황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南山 밑 목적골의 草屋 두어 칸이 험고 낡아서 비바람 조차 가릴 수 없고 아내가 삼바느질로 生計를 이어가는 구차하기 그지없는 형편임에도 許生은 책읽기만 좋아했다.<sup>13)</sup> 이 가운데 경제적, 물질적인 궁핍상은 제 2, 제 3 단계에 차례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主人公 許生이 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데서 연역되는 그의 士意識은 제 2, 제 3, 제 4 단계에 두루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2 단계는 許生이 朝鮮은 배가 外國과 通하지 못하고 수레가 國內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百物이 이 안에서 생겨나 곧 이 안에서 사라져 없어지고 만다<sup>14)</sup>는 그 자신의 말대로 國內의 경제적 流通構造의 천박성을 간파하고 스스로도 나라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매점매석의 수단을 써서 점차로 막대한 富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 2 단계는 허생이 실로 오랫동안 自身에 대해 적대관계에 놓여있었던 世界에 대해 점차 優位를 확보해 나가면서 통쾌하게 自我

14) 앞의 책, p.426.

의 승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끝임기도 채 미숙하고 工匠이나 장사는 배운 바가 없거나 밀천이 없어서 못한다<sup>15)</sup>고 한 許生은 그의 아내에게서마저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만다. 전적으로 生計를 맡아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땐 생활에 아무런 소용도 되지 못하고 무능하기 그지 없는 家長이었다. 그래서 하다못해 도적질이라도 할 수 있는 爲人이기를 바랐던 게 어찌면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아내로부터 힐난을 당하고 집을 나선 許生이 卜富者로부터 萬金을 借用하고 이를 밀천 삼아 三南의 어귀인 安城에 머물면서 果實을 獨占하는 방법으로 나라안에 잔치와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하여 마침내 十萬金을 벌어들임으로써<sup>16)</sup> 최초의 승리를 획득한다. 이처럼 萬金을 가지고 거둘 수 있었던 그의 첫 승리는 富 자체에 目的을 둔 許生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쾌한 일이 못되었다. 오히려 그는 萬金을 가지고 나라의 경계를 기울이고 그로써 이 나라의 알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 데서 탄식과 울분을 금치 못했다.<sup>17)</sup> 이로서 그치지 않고 다시 허생은 제주도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말총을 독점하여 몇 년이 지나자 나라 안 사람들이 머리를 싸지 못하게 되어 망진값이 열 배나 올랐다.<sup>18)</sup> 그리하여 許生은 또다시 巨富를 얻는다. 말하자면 2차적 승리였다. 계속해서 許生은 無人空島를 찾아들어 德을 베풀고 도적들을 구제하는 한편 海外貿易을 통해서 나라 안에 아무런 쓸 곳이 없고 넉넉히 아홉 나라의 임금의 머리를 살 수 있는 銀百萬兩을 벌어들인다.<sup>19)</sup> 제 2단계의 여러 삽화와 사건들은 결국 主人公 許生의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는 점에서 긴밀히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제 2단계에서 처음 등장하는 卜氏는 許生으로 하여금 안으로 감춰진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때 卜氏는 한낱 비렁뱅이로 취급받는<sup>20)</sup> 許生에게 이름도 묻는 법 없이 선뜻 萬金을 빌려 주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富만을 소유한

15) 앞의 책, p. 426.

16) 앞의 책, p. 426.

17) 앞의 책, p. 426.

18) 앞의 책, p. 426.

19) 앞의 책, p. 427.

20) 앞의 책, p. 426.

人物이 아니다. 許生을 보자 許生이 物質을 기다리기 전에 벌써 스스로 만족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許生이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일이 적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는<sup>21)</sup> 知人之鑑을 갖춘 인물이다. 아내에게서 無用, 無能한 인물로 취급받고 집을 나선 許生이 역시 그를 비렁뱅이로밖에 볼 줄 모르는 子弟, 賓客들과는 달리 知人之鑑을 갖춘 卞氏를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 2 단계에서 세 차례의 富의 획득이라는 경제적 승리를 통해 마침내 許生은 애초에 목적했던 바 「조그만 시험」을 마치게 된다.<sup>22)</sup>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 富의 획득이 목적은 아니었다.<sup>23)</sup> 그것은 다만 자신의 內面에 잠재되어 있던 탁월한 경륜을 세상에 한번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된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한번 마음 먹기만 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sup>24)</sup>는 능력의 과시,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제 2 단계의 모든 사건과 삽화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때 主人公 許生의 身分上昇이 수반되어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앞시대의 소설과는 또다른 작자의식의 한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許生이 성취한 富는 결국 한 가지 「조그만 일을 시험해 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銀五十萬을 海中에 던져넣고 許生은 다시 섬을 떠나 本國으로 돌아간다.<sup>25)</sup> 다음 제 3 단계는 4 개의 삽화와 17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 앞 단계에서 자세히 살핀 대로 무대와 방법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본 許生이 본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빈민을 구제하고 남은 돈 十萬을 卞氏에게 주어 버린 채 자신은 옛날의 어렵던 생활로 되돌아간다. 허생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도 현실로 변한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그를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道와 德에 투철해야 한다는

21) 앞의 책, p. 426.

22) 앞의 책, p. 426.

23) 허생이 변씨에게 “재물로써 얼굴 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만났기 아무리 중한들 어찌 도를 살피게 한단 말이냐”하고 다시 “내가 한 때의 주림을 참지 못해서 굴 입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만났을 부끄러워 할 뿐이로세”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심정은 작품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24) 제2단계의 삽화, 2-c, 2-d에서는 商賈, 2-e에서는 蠶農, 2-f에서는 群盜救濟와 理想國建設, 그리고, 2-g에서는 海外貿易 등 삽화 차원의 의미가 그것이다. 이들이 제2단계론 이루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능력의 과시라는 단계적 의미를 나타낸다.

25) 앞의 책, p. 427.

엄격한 士意識이었다. 卞氏가 “당신 얼굴빛이 조금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으니 萬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sup>26)</sup>라고 물었을 때 許生은 “재물로써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萬兩이 아무리 중한들 어찌 道를 살지게 하겠느냐”<sup>27)</sup>고 했고 다시 “내가 한때의 주립을 참지 못해서 글 읽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萬兩을 부끄러워 할 뿐이라”<sup>28)</sup>고 했다. 그래서 장사치로 대우받기를 거부했고 끝내 재물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려 했다.<sup>29)</sup> 이런 정신이 작품 전편을 일관되게 이끌어간다. 책임기를 좋아한 許生은 무인공도에 들어가서도 “덕만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찾아드는거야. 나는 오히려 내 덕없음을 걱정할 뿐, 사람 없음이 무엇 걱정될 것인가”<sup>30)</sup>했고 섬을 떠날 때도 덕이 부족해서 떠난다고 했다. 목적물로 돌아온 許生은 여러 해 동안 卞氏의 경제적 원조를 받아 生活하는데 이때 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신분의식을 기저로 한 수직적 관계일 뿐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 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5년 동안에 百萬兩을 획득할 수 있었던 許生의 탁월한 경륜이 卞氏에게 알려지고 이어 다음의 제 4 단계에서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민족적 국가적인 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재로서 李滄에게 紹介된다. 卞氏는 계속적으로 후원자 또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sup>31)</sup> 요컨대 제 3 단계 역시 진정한 士意識에 투철한 許生의 탁월한 능력과 시라고 하는 제 2 단계의 의미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제 4 단계는 4개의 삽화와 16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 먼저 卞氏가 어영대장 李滄을 찾아 許生을 소개한다. 李滄은 卞氏의 말을 듣고 함께 許生을 찾았으나 처음부터 아예 白眼視당한다. 이때 李滄이 許生에 대해 보잘 것 없는 人物로 形象된 데 반해 許生은 정신적 승리라는 자기 만족을 즐겼던 것이다. 李滄이

26) 앞의 책, p. 427.

27) 앞의 책, p. 427.

28) 앞의 책, p. 427.

29) 앞의 책, p. 427.

30) 앞의 책, p. 426.

31) 卞氏가 후원자 내지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물질적 富를 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의식에도 관련이 깊다.

나라에서 人材를 구한다고 했을 때도 許生은 먼저 李滄의 관직을 묻고 나라의 新임받는 新하임을 안 후에 이른바 時事三難을 제시한다. 許生이 당초 제시한 내용은 왕으로 하여금 外通이란 인물을 三顯草蘆의 禮를 갖춰 맞이하게 하라는 것이었으나<sup>32)</sup> 나라의 新임받는 新하라는 李滄은 어렵다고 하였다. 다시 李滄의 간청에 못이겨 제시한 代案은 明나라의 망명정객들에게 國婚을 주고 훈척가의 進물을 징발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거처하게 하라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어렵다는 대답이었다.<sup>33)</sup> 끝으로 許生이 가장 쉬운 代案이라 하여 나라 안의 자체들을 선발,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혀 淸국에 들여보내 혹은 과거를 보게하고 혹은 江남에 가서 장사를 하게 하여 자들의 허실을 엿보고 그 호결과 결탁하면 큰일을 꾀할 만하고 國恥도 씻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또 天下에 大義를 드날리는 일이 될 것이라<sup>34)</sup> 하였으나 李滄의 대답은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근수하는 마당에 누가 이를 받아들여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겠습니까><sup>35)</sup>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許生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李滄을 향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다. “소위 사대부라는 게 무엇들이냐, 彝猶의 땅에 나서 자칭 사대부라 뽐내니 어찌 앙큼하지 않느냐, 바지 적고리는 희게만 하니 이는 喪服이요, 머리털은 묶어 송곳같이 찌니 이는 곧 남만의 방아공이라<sup>36)</sup>(방점 : 필자 주 이하 같음)하여 <사대부라 자칭하는 자들>의 권위를 여지없이 실추시켰다. 그는 계속해서 “내 비로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되 너는 단 한가지도 할 수 없다면서 자칭 新임받는 新하라 하니 新임받는 新하란 게 겨우 이렇단 말이나, 이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sup>37)</sup>”고 하면서 칼을 찾아들고 李滄을 치려 하자 李滄은 뒷문을 넘어 급히 도망쳤다. 李滄의 반사적 행동이 戲畫化되어 있는 데서 <위정자> 즉 무능, 무용한 <新임받는 新하>, 그리고 <사대부라 자칭하고 뽐내는 우리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요컨대 제

32) 앞의 책, p. 428.

33) 앞의 책, p. 428.

34) 앞의 책, p. 428.

35) 앞의 책, p. 428.

36) 앞의 책, p. 429.

37) 앞의 책, p. 428.

4 단계는 「許生—李滄」이라는 대조적인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名分만을 내세울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도 자칭 사대부니 신임받는 신하니 하며 뽐내는 자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許生의 정신적 승리, 우월감을 유감없이 그려내어 사뭇 고조되는 분위기의 형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許生이 거둔 승리는 정신적 측면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그의 탁월한 능력 또한 現實改良이란 면에서는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작가의 意識上的 한계 또는 그가 처한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作家論에서 해명할 문제이다. 또 時事三難과 관련해서 무능한 권력담당층에 의해 누적되어 온 사회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구체적으로 暗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李滄이 과거 역사에 實在했던 인물로 許生에 따르면 “자칭 사대부라 하여 뽐내며”, “자칭 신임받는 신하”라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집권층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許生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제들이 한결같이 역사적 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공상적 이야기가 中心이 되는 제 2, 제 3 단계에 비해 제 4 단계는 사실 중심의 이야기가 된다. 허구와 사실을 共有함으로써 사실의 허구적 변용이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제 4 단계는 진정한 土意識에 투철한 許生이 순수와 지성, 탁월한 현실인식의 능력을 갖춘 인물이란데서 무능자 李滄을 집중 공략하는 내용이 된다. 끝으로 제 5 단계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1사건 1삽화로 이루어진다.

## V. 전체적 짜임새

이제까지 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온 여러 단계들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연결관계와 그로써 이루어지는 상급단위 곧 하나의 완결된 작품에의 유기적 결함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 이상의 삽화들이 모여 단계를 이루고 있는 짜임새는 이미 앞에서 다루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각 단계가 전체를 이루는 짜임새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각 단계의 연결관계부터 살펴보자.

제 1 단계의 상황제시와 인물설정은 작품 「전체」를 밀고 나가는 힘으로 작

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의 연결관계는 비약적이라고 하겠다. 제 1 단계의 許生은 일견 무능하고 무용한 인물인 듯 보였다. 그래서 아내의 샴바느질로 생계를 잇는 경제적 궁핍에도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에겐 독서만이 중심 명제였다. 그러나 제 2 단계의 許生은 놀라운 변모를 보인다. 아내의 불평과 힐난에 대해 工匠이 노릇이나 장사치 노릇은 배우지 않아서 또는 밑천이 없어 못한다고 했던 許生이 마침내는 巨富를 획득하는 商賈가 되고 농업을 경영하고 海外貿易을 하며 수천의 도적들을 구제해서는 理想的인 나라를 건설하려 했다. 무능한 인물로 인식되었던 許生이 실제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탁월한 능력과 경륜, 사물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임이 구체적으로 분명해졌다. 제 2 단계의 許生이 여러 삽화들을 통해 農, 工, 商은 물론, 理想國建設이라는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탁월한 경륜으로 생각할 때 제 1 단계에서 제시된 경제적 궁핍상은 애초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의 무능의 소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 단계의 허생이 보여준 주요활동이 자칫 그를 선비(양반)와 상인이라는 兩面性을 지닌 人物로 성격화하기 쉬우나 이는 삽화의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許生이 진정한 士意識에 임격했고 투철했던 인물이었음이 작품의 전 단계를 통해 일관된 문맥으로 장치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제 2 단계의 許生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능력을 발휘, 세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그를 개조해 보려고 했다. 그가 商行爲를 통해 사용했던 매점매석의 수법은 商道義를 저버린 「小人之賈」이며 나라를 병들게 하는 惡德이라고 스스로가 지탄함으로써 자신의 상업적 활동을 정면 부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주제 파악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 3 단계의 의미도 제 2 단계가 나타내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아, 애석하구나, 내 애초 글읽을 제 십년을 기한했더니 이제 겨우 칠년밖에 되지 않는구나”하며 집을 나왔던 許生이 “내가 한때의 주림을 참지 못해서 글읽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돈 만냥을 부끄러워 할 뿐이라”고 하면서 5년에 걸친 사회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환한다. 그러나 그가 펼쳐 보였던 사회활동이나 엄청난 富마저도 그와 아내 사이에 심각하게 야기되었던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관련이나 보탬이 될 수 없었다. 許生은 결국 자신의 관심 사단을 시도하고 시험했던 것이다. 아내가 경제적 궁핍상을 직접적으로 분제삼고 있는 데 반해 許生은 아내에게서마저 무용, 무능한 인물로 낙인찍히게 따른 실추된 명예의 회복, 바꿔 말해서 자신의 능력 과시가 중심과제였다. 이를 시험해 본 그는 이제 아무 미련도 없이 빈손으로 귀가하여 옛날의 가난한 선비로 돌아간다. 그는 책임기를 중단하고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늘 德이 부족함을 걱정했고 道를 생각했던 진정한 士意識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다 끝내지 못한 독서를 계속하려 했으리라) 따라서 제 2, 제 3 단계는 필연적이며 수평적인 연결을 이룬다. 한편 제 3, 제 4 단계의 연결은 또다시 비약적이다. 가난한 일개 선비 許生이 卞氏를 통해 李滄과 만나는데 「許生—李滄」의 만남에서 야기되는 문제 또한 제 2 단계와 마찬가지로 許生 자신에게는 그 심각성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것이었다. 卞氏가 許生에게 지금 나라에서 큰 인재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 許生은 자신을 장사일이나 잘하는 사람이라 했다.<sup>37)</sup> 또 卞氏가 당신같은 재주로써 어찌 괴롭게 어둠에 묻혀 이 세상을 마치려 하는가<sup>38)</sup>고 물었을 때도 그는 “어려, 예로부터 어둠에 잠긴 자가 얼마나 많았었고, 저 조성기는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하건마는 배잡방이로 늙어죽었고 유형원은 넉넉히 군량을 나를 만하였으나 저 해곡에서 바장이고 있지 않던가...”<sup>39)</sup>하고 반문했다. 제 3 단계에서 이미 평온상태로 돌아갔던 許生에게서는 李滄에게서 볼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적 궁핍상을 문제삼은 아내로 하여 글읽기만을 좋아한 許生에게 제 2 단계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면 제 4 단계에서는 許生이 현실인식의 예리한 통찰력과 세상 경륜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참된 지성인이라는 사실이 卞氏를 통한 李滄과의 만남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문제는 어떤 해결도 없이 파탄에 이르고 만다. 李滄이 國難克服을 위한 수준높은 政策代案을 구한다면서도 許生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그의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許

38) 앞의 책, p. 428.

39) 앞의 책, p.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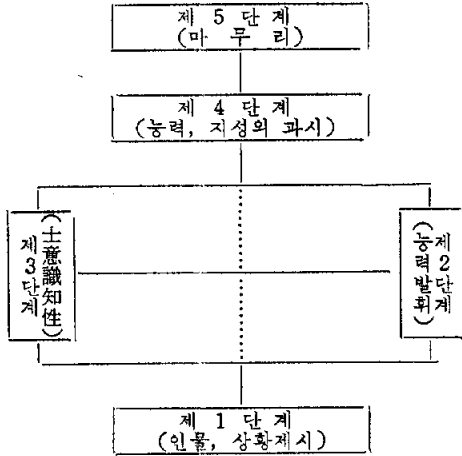
生の 태도는 李滄이라는 구체적 인물, 또는 그로써 대표되는 집권층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바뀐다. 이때 知性人 許生의 優越性이 無能者 李滄을 통해 逆說의으로 유감없이 과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허구에 가득찬 집권층은 朱子學의 本領에서 벗어나 있는 士大夫로까지 그 개념이 포괄적이다. 이에 따라 긴장이 계속되고 작품의 분위기는 사뭇 고조된다. 만일 작가가 하나의 사건을 스토리의 절정으로 삼는다면 그는 그 행위로써 그 사건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sup>40)</sup>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許生이 제 2, 제 3 단계에서 보여준 순수 지성과 능력의 과시는 제 4 단계를 위한 준비과정이라 하겠다. 그만큼 제 4 단계는 의미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許生—李滄」의 만남이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데 이때 수평적 거리 개념은 두 사람 사이의 현실 인식의 차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또 수직적 공간은 능력과 무능력, 지성과 비지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제 4 단계는 앞 단계에 대해서는 비약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상급단위 형성에의 이타지란 면에서는 中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제 5 단계는 제 4 단계와의 연결이라기보다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작품 전체와의 연결이 된다.

다음으로 각 단계가 전체의 형성에는 각각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자, 제 1 단계는 前述한 대로 상황제시, 인물의 제시에 해당한다. 제 2 단계는 許生이 잠재된 능력과 지성을 발휘, 그의 非凡性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제 3 단계는 제 2 단계의 의미와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제 2 단계가 장면전환방식에 의한 구체적 제시라고 한다면 제 3 단계는 요약적 진술방식을 따르고 있다.<sup>41)</sup>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의 연결은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 2 단계와 제 3 단계의 연결은 점진적이라고 할 것이다. 제 4 단계는 전체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제 3 단계와의 연결은 또다시 비약적이다. 끝으로 제 5 단계는 전체 이야기를 종결짓는 부분이

40) William Kenney, 앞의 책, p. 123.

41) 許生曰「…朝鮮 身不通外國 車不行城中 故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 夫千金 小財也 未足以盡物 然析而十之 百金十 亦足以致十物 物輕則易轉 故一貨雖細 九貨伸之 此當利之道 小人之賈也 夫萬金 足以盡物 故在車專車 在船專船 在邑專邑 如網之有罟 括物而數之 陸之產萬 潛停其一 水之族萬 潛停其一 醫之材萬 潛停其一 一貨潛藏 百寶皆潤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 必病其國」

다. 이상 각 단계의 연결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도표와 같다.



## Ⅵ. 주 제

### Ⅵ-1. 기왕의 주장들

종래 「許生傳」의 주제라고 하여 주장되어 온 것을 보면 전적으로 素材史의 의미 내지는 삼화나 단계적 차원의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대표적인 예로 金台俊님은 “……言言句句마다 警世鍾 아님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百五十年前的 옛날에 오히려 外國留學, 外國貿易을 獎勵하며 斷髮勵行과 白衣廢止를 高唱한 것을 생각하면 燕巖은 可히 千秋의 師表가 되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sup>42)</sup>라고 하여 후일의 이런 식의 주제 파악에 하나의 원류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어받은 金一根님은 重商論의 경제사상을 中心思想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출하였다. (1) 儒生이 商賈로 계급적 위치를 바꾸는 점, (2) 경제관념이 근대화한 것(자본주의), (3) 國外國內交通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4) 外國貿易을 말한 것 (5) 外國留學의 力說 (6) 斷髮勵行 (7) 白衣폐지 (8) 士大夫의 무능을 比할 것 (9)

42) 金台俊, 朝鮮小說史, 학예사, 1922, p.177.

社會惡은 그 社會 政策如何에 있다는 것<sup>43)</sup>, 다음으로 李家源님은 작품 주제를 二元的으로 평가, 제 1의 주제는 당시 소위 「四民」의 계급적 타파로서 商·工意識의 고취에 있었으며 제 2의 주제는 곧 당시 僞學者의 유일한 利器인 北伐策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한편 그와 정반대적인 北學論을 주장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는 상업경제사상의 고취, 이상국 건설, 북벌파배격, 북학사상고취를 들었다.<sup>44)</sup> 또한 李在秀님은 李家源님의 所說을 답습, 二元的으로 파악하고 (1) 重商主義, (2) 車舟論, (3) 理想國家의 건설, (4) 爲政者에 대한 비평, (5) 北伐論, (6) 尊明思想<sup>45)</sup> 등을 내세워 삼화가 나타내는 의미의 총화를 주제로 파악한 예의 한 전형이 되다시되었다. 그러면서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거창한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한편의 단편소설로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논단해 버렸다.<sup>46)</sup> 이러한 주장들의 배경에는 방법론적 미숙성 이외에 思想性의 강조라는 또다른 外在的 要因이 작용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각 단계나 삼화 수준에서 갖는 소재적 의미는 주제 차원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회의식 내지는 사회, 역사적 측면 또는 技法上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예로 든 전통적인 방법론에 대해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한 黃滄江님은 “허생의 이윤추구적인 일련의 賈販行爲와 時事三難에서의 淸과외의 交易제기 등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許生傳」을 「상업경제사상」 내지 「重商의 思想」을 고취한 작품인 양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본 소설의 표면적인 형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본격적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소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47)</sup>고 하였다.

## Ⅵ-2. 「許生傳」의 주제

이제까지 작품의 구조분석과 부분의 자세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許生傳」의 전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실 인식의 탁월한

43) 金一根, 燕巖小說의 近代의 性格, (경복대 논문집 제1집, 1956), pp. 173~175.

44) 李家源, 앞의 책, pp. 639~712.

45) 李在秀, 앞의 책, pp. 332~352.

46) 李在秀, 앞의 책, p. 362.

47) 黃滄江, 「許生傳」 연구 (朝鮮王朝小說研究, 檀國大出版部, 1978), pp. 284~285.

능력과 참된 지성을 갖추고서도 그것을 內面에 깊이 감추고 진정한 土意識으로 일관했던 許生의 優越感의 표출, 즉 순수 지성인 許生의 엘리트(Elite) 意識<sup>48)</sup> 결국 許生이 제 4 단계에서 위선과 기만에 가득찬 집권벌벌층을 신랄히 비판, 통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2, 제 3 단계에서 거둔 자아의 승리, 다시 말해서 냉철한 현실의 관찰자로 참된 지성인이었던 그의 비범성 때문이었다.<sup>49)</sup> 따라서 그의 잠재된 비범성을 객관화 하는 데 기여한 제 2, 제 3 단계는 바로 제 4 단계에 대해 일종의 리어리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작품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첫째로 그는 무엇보다 비판정신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냉철한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서 경제·정치·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병리현상과 비합리적 모순을 진단해내고 그에 대한 처방책까지도 제시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창조적 비판정신을 소유한 인물로 보인다.<sup>50)</sup> 둘째, 許生은 순수성의 인물이었다. 그는 사념이나 사욕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고 사고하였다. 다음과 같은 卞氏의 말은 그의 인물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의지를 과장하여 신의를 나타내는 법이야. 그러나 그 얼굴빛은 부끄럽고도 비겁하며 말을 거듭함이 일췌이다. 그런데 이 손님(許生—필자 주)은 옷과 신이 비록 떨어졌으나 그 말이 간결하고 눈가짐이 거오하고 얼굴엔 부끄러운 빛이 없음을 보고서……」<sup>51)</sup> 세째, 許生은 自足的인

48) 金允植은 S. Martin Lipset의 *America Intellectuals*(1959)를 인용, 지식인 내지 지성인의 개념을 “대개 문예, 예술, 과학, 종교를 포함하는 상징적 체제를 창조, 분배, 적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규정한 바 있으며 (金允植, 한국문학사 논고, 법문사, 1973, p.84 참조) 또한 엘리트(Elite)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 선발된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社會的 精銳人物(the best or most important people in a social group;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Ltd., 1978)이라는 의미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49) 이 비범성으로 인해 主人公 許生은 작품 全篇에서 超人化되어 나타난다.

50)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李在鎭 교수의 견해를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즉 “그것은 양반 중심의 봉건적 가치체제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이탈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양반의 현실적인 취약성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李在鎭, 한국 문학의 해석, p.12) 그리고 그러나 관점은 굳이 漢字를 표현매체도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더욱 확신이 가는 것이다.

51) 凡有求於人者, 必廣張志意, 先耀信義 然顏色愧屈, 言辭重複 彼客 衣履雖弊, 辭簡而視傲 容無作色

며 강한 自我意識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卞氏에게서 萬兩을 빌리고서도 아무 인사가 없었다든가(客竟不謝而去), 땃사공이 “섬이 텅 비어 있어 사람 하나 구경할 수가 없으니 뉘와 함께 사신단 말씀이오”하고 묻자 許生은 “덕만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찾아드는거야, 나는 오히려 내 덕없음이 걱정이지 사람 없음이 무엇 걱정될진가”라 하였다. 또 卞氏가 “당신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도 낮지 않으니 萬兩을 잃어버린 모양이오”하고 물었을 때도 許生은 “재물로써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장사아치—필자 주)이나 할 일이지 萬兩이 아무리 중한들 어찌 道를 살지게 한단 말이오”하여 강한 자부심과 자아의식을 드러낸다. 계속하여 卞氏가 十分之一의 利文만을 받으려 했을 때도 許生은 크게 노하여 “그대 어찌 나를 장사아치로 대우한단 말인가”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극도의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許生은 지나친 물질의 향수를 피박시하여 재물로써 마음을 괴롭히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사는 까닭을 말하되 스스로를 저 조성기, 유형원과 同一視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는 특히 술을 좋아해서 卞氏가 술병을 차고 가는 날이면 더욱 기뻐하여 서로 권커니 마시거니 하며 취하고 말았다.<sup>52)</sup> 許生은 실로 自足的이며 또한 樂天的인 사람이었다.

## VII. 맺 는 말

이상에서 「許生傳」의 전체의미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구조분석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許生傳」의 주제는 知性人 許生의 엘리트(Elit)意識을 形象化한 것으로 귀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作家(또는 현실적 自我가 非我를 매개로 假托한 「허생」)의 창조적인 비판정신을 통하여 일정한 거리화에 성공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객관적 구조적 방법론이 작가나 작가가 처한 상황을 도외시할 경우 자칫 독단론적 형식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

52) 以酒往 則益大喜 相與酌至醉

음<sup>53)</sup>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53) 그렇더라도 형식은 어디까지나 「존재」의 표현이며 표현의 技法인 점에서 「존재」의 해명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